

# “전북도 무상급식 지원 비율 확대해야”

### 박재만 원내대표, “도비 분담비율 15%는 생색내기 불과…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차원 적극 협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박재만(군산) 원내대표가 전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며 상황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농어촌 지역과 도시권 학생들의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이들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32억 원 중 도에서 분담해야 할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침과 달리 추가 소요예산 중 도비 분담비율을 15%만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상황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5개 시 지역 고등학교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현 의원도 지난 8일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농어촌지역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전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은 환영하지만 도비 분담비율은 상황 조정해야 한다”면서 “내



스리랑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스리랑카 협정 서명식을 마친 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132억 원 중 도에서 분담해야 할 예산은 정례회 예산심사 기간 내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

계 구축과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정동영 “적정 설계·감리비, 안전·일자리 기여”

### 건축사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적절한 설계·감리 비용 지급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인 ‘저가 설계·감리비·부실 설계·감리’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설계·감리)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 기준을 참고·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수정·변경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주요 당사자들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논란이 없어 법사위와 본 회의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건축사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우리 집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 가능성은 없었는지, 우리 주변 건축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축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로 인한 문제가 감소하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며, 감리 강화로 하자, 부실시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건축사들에게 적절한 설계비와 감리비가 지급되면 설계, 감리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합참의장에 정밀타격훈련 권한 사전위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틀 전부터 포착하고 지난 27일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육·해·공 합동정밀타격 훈련 실시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합참의장에게 지·해·공 합동정밀타격 훈련 권한을 사전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오늘의 새벽 도발은 이틀 전에 감지된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27일에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지해공 미사일 합동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래서 실제로 발사가 있었던 오전 3시17분으로부터 6분 뒤인 3시23분에 이 훈련이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도 약 4500km, 비행거리는 약 960km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군은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함대지 미사일 해상-2, 공대지 미사일 스퀘어-2000을 동원한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미리 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다만 형태는 국방부에서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한 것과, 도발 임박을 알리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민주·국민, ‘호남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당이 관련 사업비용의 내년 예산 편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흥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양당 공동정책협의를 갖고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 대한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양당은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안은 호남지역 관광, 발전 인프라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방안”이라며 “전국의 주요 거점 국제공항은 모두 연계철도망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인천공항에는 공항철도가, 김포와 대구공항에는 도시철도가, 새로 짓는 김해 신공항 주변에도 철도망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또한 국제공항과 광역철도망 간의 연계 전략에 맞춰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획대로 무안공항 노선으로 확대되면 국가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공항으로 향상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고속철은 역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며 “이용객을 위해서나 무안공항 발전을 위해서나 호남선 KTX는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송지용 도의원에 ‘감사패’ 원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이 원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송지용 의원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영순 회장은 “전라북도의원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과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모든 회원의 마음을 이 때에 담아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송지용 의원은 “지역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들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한 교육

해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